

관절통을 경험한 도서지역 여성의 체험연구*

김 간 우**

A Phenomenological Perspective and Meaning of joint-pain's Experience of Women's in an island *

Kim, Gan Woo **

This Qualitative nursing research was made with a hermeneutic phenomenological approach to find out the meaning and nature of human's experience. The purpose of the inquiry is to find out the meaning and to understand the nature of joint pain's experience of women in the island and to apply the result to nursing practice.

The study was guided by Shin Kyung Rim's four step that revised van Manen's method for doing research. The method of inquiry included : turning to interesting phenomenon ; inquiring and investigating experience as it was lived rather than as conceptualized ; reflecting and analyzing essential themes which characterize phenomenon ; and describing phenomenon through art and literature. Multiple strategies for data collecting were needed : deep face to face interview ; analysis of joint pain of women's writings ; describing and analysis of examples of the phenomenon in art, literature. Through this process essential them of the experience was emerged ; Misery that I would like to cut off my body, Sea wind soaking deeply into the bones, Dull pain from the postpartum cold wind, The another suffer I should endure by myself, Recrudescence despite all the try I have made, Often forgetting the pain of every joint for hardship of life.

Findings from artistic and creative inquiry further was validated and meaning was discovered. The study illuminated meaning and simultaneously validated the phenom-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과학대학 석사학위 논문

** 이화여자대학교 부속 목동병원 간호부 (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enological research process.

Essential themes for understanding women joint pain's experience, implications, for education, research and practice, direction and need for continuing inquiry were identified.

I. 序 論

1. 研究의 必要性

西洋醫學에서는 關節痛을 관절과 그 주위의 통증으로 정의하며 東醫學에서는 팔다리의 아픔(四肢疼痛)으로 팔다리의 근맥과 기육, 관절, 뼈가 아픈 것이 이에 해당한다. 팔다리의 아픔을 주호소로 하는 病症에는 행비(行痺, 風痺), 한비(寒痺), 착비(着痺, 濕痺), 열비(熱痺), 근비(筋痺), 맥비(脈痺), 기비(肌痺), 피비(皮痺), 골비(骨痺)등이 있고 이는 풍(風), 한(寒), 서(暑), 습(濕)의 사기(邪氣)가 經絡에 침범하여 생기는 것으로 서양의학의 류머티스성 관절염, 골관절염이 있을 때 일어난다(동의 내과 증상의 감별과 치료, 1992).

關節痛은 주로 관절염, 골관절염에서 유발되는데 관절통에 대한 전국적 역학조사가 없어서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으나 일부 農村地域住民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관절통의 비율은 요통과 상하지의 관절통이 36.6%, 이중 男性이 13.8% 女性이 22.8%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2배에 가까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었다(박정양, 1981). 최근 島嶼地域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관절통의 경험 중 요통(腰痛)이 65.16%, 무릎통증이 49.68%, 어깨통증이 36.77%, 손가락과 손의 통증이 25.16%, 뒷목의 통증이 24.52%(신경립, 1997)로 위 농촌의 연구 조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관절염(關節炎)은 관절이나 그 주위를 침범하는 상태를 지칭하는 용어로 류마티스성 관절

염, 퇴화성 관절염, 감염성 관절염, 외상성 관절염, 대사성 관절염 등을 포함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류마티스성 관절염은 세계 약 2억의 인구가 가지고 있으며 이중 여성이 3/4이고 40세에서 50대 사이의 중년층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질환이다(이은옥, 1994). 이상헌(1994)은 한국 전체 인구의 5~10% 가량이 류마티스성 관절염을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고, 관절통을 유발하는 관절염은 우리 나라 만성질환 중 30%를 차지하고 있다(간협신보, 1992. 10. 1)고 보고되고 있다.

골관절염(骨關節炎)은 退行性 關節炎이고 하며 중년기 또는 장년기 남녀에 흔하며 60세 이후 여자의 25%, 남자의 15%에서 퇴화성 관절염과 관계되는 증상을 가지고 있으며 55세 이상일 경우 女性의 發病率이 더 높다(서문자, 1995).

이러한 관절통은 慢性的 特性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계속적인 약물 복용을 불가피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혹은 자살까지도 유발할 수 있으며 인력의 손실, 의료비의 증가 등 社會經濟的인 損失(이은옥, 이선옥, 임난영, 최순희, 김달숙, 김순자, 한윤복, 김주희, 김광주, 박점희, 1992)과 시간이 지나갈수록 자신의 질병과 통증에 대한 두려움, 우울, 위축되며 신체적으로는 매우 지치며 불면증, 식욕부진, 체중감소, 전신허약증 등이 나타내고(김조자, 전산초, 최영희, 1992), 대상자로 하여금 가족구성원으로서 가족기능에 대한 不滿足을 야기시키고 자기비하로 인한 否定的 情緒는 낮은 자존감 상태에 머물러 있게 한다. 따라서 신체·정신적인 면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심리, 직업, 취미에까지 파급되므로 병자체에 대한 부분

적인 해결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모든 관점에서 다루어야 한다.

관절통은 가장 두드러진 인간 경험인 통증의 하나로 각 개인은 독특한 방법으로 해석한다. 통증의 의미는 개인 및 사회문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므로 과거경험, 미래에 대한 기대, 통증 역치의 생리적 변화, 의사소통 행위적 반응은 환자의 통증의미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한국사회에서의 여성이 경험하는 관절통 경험의 의미와 본질은 독특할 것으로 사료된다. 지금까지 관절통에 대한 國內의 研究들은 관절염환자의 통증과 情緒의 變數로서 우울과 삶의 질, 그리고 관절통 관리 방법으로서 수중운동, 냉온요법적용 등에 관한 量的 研究와 관절염 환자의 통증조절(은영, 1995), 관절염환자의 피로 경험(권영은, 정명실, 1996)에 관한 質的 研究가 보고되었지만 관절통 체험에 관한 본질적 의미를 이해하기에는 限界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관절통을 이해하고 관절통을 경험한 도서지역 여성의 체험의 본질을 무엇인가를 탐색하는 작업이 선행됨으로써 그들을 위한 舍人的 看護가 이루어지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現象學과 解釋學이 결합된 벤 매넨(van Manen)의 解釋學的 現象學 研究方法로 가능하다. 따라서 벤 매넨의 연구방법을 통하여 자료수집, 자료분석, 해석과 경험의 개인정보에 대한 현상학적 반성을 위한 해석학적 연구 과정을 따르고자 한다.

2. 研究의 目的

본 연구의 목적은 도서지역 성인 여성의 關節痛의 經驗을 이해하고 그 本質과 意味를 파악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서 이들의 관절통의 체험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관절통을 경험한 도서지역 여성들의 간호중재개발을 위한 基礎資料를 제공하고자 함이다.

II. 方法論的 背景

1. 벤 매넨의 解釋學的 現象學 研究

본 연구는 질적 연구 방법의 하나인 현상학, 해석학 그리고 언어학을 綜合的으로 사용한 벤 매넨의 研究方法를 適用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벤 매넨이 제시하는 해석학적 현상학적 연구 방법은 일상생활의 체험과 실제 행동에 대한 텍스트적인 반성이라 할 수 있다. 이 목적은 사려와 실제적인 임시 응변을 높이는 것이다. 따라서 현상학은 체험을 지향하는 법을 기술하고 해석학은 '삶의 텍스트들을 해석하는 법'을 기술한다. 그리고 이때 현상학과 해석학의 방법을 접근하는 실제적인 글쓰기 방법이나 언어학적 방법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기호학이 사용되었다(벤 매넨, 1990 ; 신경림, 1994).

벤 매넨이 제시하는 해석학적 인간과학의 철학적 개념은 다음과 같이 기술할 수 있다.

첫째, 현상학적 연구는 體驗을 연구한다.

둘째, 현상학적 연구는 意識에 나타나는 대로의 現象을 解明한다.

셋째, 현상학적 연구는 本質을 연구한다.

넷째, 현상학적 연구는 體驗의 意味를 우리가 겪은 대로 記述한다.

다섯째, 현상학적 연구는 현상에 대한 人間科學的 研究이다.

여섯째, 현상학적 연구는 思慮의 주의깊은 實踐이다.

일곱째, 현상학적 연구는 人間の이라는 것이 무엇을 意味하는 가를 探究한다.

여덟째, 현상학적 연구는 一種의 詩作活動이다(벤 매넨, 1990 ; 신경림의 역, 1994).

벤 매넨은 현상학적 연구와 기술을 하는데 指針이 되는 것으로서 특수한 단계를 4分類에 따라 11段階로 설명하였으나 신경림(1998)이 10

段階로 修正한 단계를 따라 본 연구를 수행하였고 그 단계는 다음과 같다.

1. 체험의 本質에 集中 : 본질적으로 인간적인 경험으로서의 현상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물음을 던지는 것이다.
 - 1) 단계 : 現象을 志向
 - 2) 단계 : 現象학적 質問 形成
 - 3) 단계 : 假定과 先理解 설명
2. 實存的 調査
 - 4) 단계 : 해석학적 현상학적 經驗의 構成
 - ① 현상학적 文獻 參考
 - ② 藝術, 文學作品으로부터의 經驗의 記述
 - ③ 연구자 自身の 經驗記述
 - ④ 연구참여자 個別體驗記述
3. 해석학적 현상학적 反省
 - 5) 단계 : 主題 分析

생활 세계에서 묘사된 주제적 측면을 노출
주제 진술 분리
언어적 變形 구성
예술 작품에서 주제 陳述 蒐集
 - 6) 단계 : 本質의 主題 決定
4. 해석학적 현상학적인 글쓰기
 - 7) 단계 : 參與者의 日常 言語에 集中
 - 8) 단계 : 例題의 多樣化
 - 9) 단계 : 글쓰기
 - 10) 단계 : 글 고쳐 쓰기(벤 매년, 1990)

고 있었지만 그들의 가족들은 이를 老化의 過程으로 當然視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본 연구자는 도서지역 여성에 있어서 관절통이란 어떤 것을 意味하여 그들의 실제적인 體驗은 무엇이고 이것이 삶에 어떠한 影響을 미치는지에 대한 質問이 생겼으며 시간이 점점 경과될수록 연구자의 關心은 더 가속화 되었다.

2) 關節痛의 體驗에 관한 현상학적 質問 形成
본 연구에서 형성된 현상학적 質問은 ‘도서(島嶼)지역 여성들이 갖는 관절통의 體驗은 무엇이며, 이러한 체험이 그들에게 주는 意味는 무엇일까?’이다.

본 연구의 과제는 관절통을 경험한 도서지역 여성의 체험의 意味를 發見하고 그 構造를 發見하는 것이다. 현상학적 질문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重要的 限界點은 假定과 偏見과 현상에 대한 先理解를 判斷中止(Bracketing)하며 說明하는 과정이다(신경림, 1995). 본 연구자는 판단 중지하는 작업을 위해 자유롭고 개방적인 질문을 하였으며 가능한 한 참여자가 자신의 體驗을 스스로 이야기하도록 하였고 연구자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先入見은 무엇인지를 연구과정동안 계속해서 자문하였다.

Ⅲ. van Manen의 해석학적 현상학 方法論適用

1. 體驗의 本質에 集中

1) 關節痛의 體驗에 대한 志向
본 연구자가 건강증진교육 차 S도에 방문하게 되었을 때 대부분의 성인여성들이 관절통을 호소하고 있었다. 이러한 관절통을 완화하기 위해 새로운 약을 구해볼까 하고 끊임없이 호소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관절통으로 고통받는 대상자들에게는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

- 3) 關節痛의 體驗에 대한 假定과 先理解
- (1) 연구자의 假定
 - 관절통을 풍(風), 한(寒), 서(暑), 습(濕)의 사기(邪氣)로 생긴다고 하였는데 다습하고 바람이 많은 도서지역 여성들은 도시여성과 다른 독특한 관절통의 체험할 것이다.
 - 해석학적 현상학 개방형 面談을 함으로써 도서지역 여성들에게 관절통의 체험서술을 통하여 그들만의 건강문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도서지역 여성의 관절통의 경험에 대한 토의를 통해 새로운 洞察力을 얻고, 관절통의 경

험에 대한 간호학적인 폭넓은 認識과 경험의 理解를 위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2) 연구자의 先 理解

Munhall(1997)은 판단정지(breckting)의 목적을 일정기간동안 자신의 믿음을 따로 놓아두고 우리의 지식에 방해받지 않고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우리자신의 전제나 믿음을 확인하려하지 않고 참여자와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개방성을 준다고 하였다. 各 個人의 經驗은 그들 각자에게 독특함을 인식해야 하며 연구자의 경험 역시 독특한 것이다. 현상학적 연구의 본질이 연구자가 가능한 한 적은 편견과 理論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하는 것이 요구되기 때문에 본 연구자는 자료수집전에 선입견이나 선 이해를 줄 수 있는 文獻考察을 하지 않았으며, 자료가 어느 정도 모아진 後에 자료수집과 함께 문헌고찰을 시작하였다.

2. 實存의 調査-해석학적 현상학 경험의 構成

1) 현상학적 文獻考察

(1) 語源 追跡

語源을 주목하다 보면 그 본래 원천인 체험과 생생한 聯關을 가지고 있던 時의 本來의 생활형식과 종종 만나게 된다(벤 매넨, 1990 ; 신경림 외 역, 1994). 이것은 주요 단어의 근원을 추적하기 위해 언어적 자원과 사전을 통해 수행된다. 따라서 본 연구인은 ‘關節’과 ‘痛症’, ‘疼痛’, ‘관절통’의 어원을 추적하였다.

가. 關節

· 관절(關節) : 뼈와 뼈가 서로 맞닿는 부분, 뼈마디(국어 대사전, 1972).

· 관절(Joint) : 관절은 두 개의 뼈가 서로 맞닿는 연결부위로 약 68개의 관절이 있고 뼈의 움직임을 원활히 하는데 관절의 일차적 기능이 있다(이상헌, 1994).

나. 疼痛과 痛症

· 동통(疼痛) : 쭈시고 아픔, 고통(이희승, 1994)

· 통증(痛症) : 아픈 증세(이희승, 1994)

· 통증(Pain) : 어원이 latin어의 Poena(punishment)로 Sanscrit어원의 pu(purification)에서 유래하였다. 즉 통증은 벌을 주는 전통적인 방법이었고 신으로부터 구원을 향한 방법으로 간주되었으며 신에게 빚을 갚을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되었다(Zborowski, 1969).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 감각영역, 정서적 영역, 인지적 영역 및 동기화 영역으로 구성된 개별적이고 주관적인 아픔을 의미하는 추상적인 개념이다(Melzack & Cassey, 1968).

다. 關節痛

· 관절통(arthralgia) : 관절의 통증을 전달하는 통각 신경섬유는 대부분이 섬유관절포에 일부가 인대에 분포하고 있다. 관절포라도 신경섬유는 활막에 달할 뿐이고 활막음모내에는 분포하지 않고 있다. 관절포를 잡고 비틀거나 하면 강한 통증이 야기된다. 관절통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생기는데 변형성 관절통의 초기에는 관절포나 인대에 비생리적인 외력이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되고 관절염의 통증은 염증성의 변화가 활막을 넘어서 섬유관절면에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정문길, 1995).

(2) 현상학적 文獻考察

벤 매넨의 현상학적 文獻을 參考하는 것의 重要性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벤 매넨, 1990).

“현상학적 문헌은 우리를 사로잡는 주제나 문제를 기술적인 혹은 해석적인 방식으로 이미 전달한 바 있는 資料를 담고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다른 현상학자들의 작업은 우리가 함께 對話를 나눌 源泉이 된다. 선택된 현상학적 자료들은 우리가 체험을 해석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방식에 관해 보다 깊이 反省할 수 있게 해주며 또

한 우리의 限界를 알게 해주고 우리의 해석적 감수성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게 해준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현상학적 문헌 뿐만 아니라 동·서양 의학의 측면에서 관절통을 일으키는 原因과 관절통의 知覺原因, 통증의 治療 등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文獻考察을 하였다.

가. 現象學的 文獻

관절통에 관한 문헌은 1982년도에서 1997년도까지 국내의 문헌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도서 지역에 관한 현상학적 문헌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류마티스 관절염환자의 통증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문헌이 1편 있어서 본 연구에 도움을 주었다.

관절통은 허혜경(1995)에 의하면 여성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통증경험을 현상학적으로 분석하여 질병으로 인한 불확실함, 우울 등의 否定的 情緒, 부정적 정서를 표출하기 보다 생활에 適應하려는 질병을 受容하려는 노력, 再發되는 疼痛의 치료과정 경험, 痛症과 신체적 움직임의 制限과 疲勞로 인한 가정과 직장, 사회에서의 役割 遂行의 制限, 가족으로부터 물리적 도움을 기대하면서 자신의 役割遂行不足으로 인한 劣等感과 미안함 등의 부정적 정서인 家族과 關聯된 經驗의 5가지 주제를 도출해냈다.

나. 東·西洋 醫學觀點에서 본 關節痛

ㄱ. 東醫學的 觀點으로 본 關節痛

東醫學에서는 身體를 五臟과 六의 臟器로 나누었고 이는 五行(목(木), 화(火), 토(土), 금(金), 수(水))의 법칙에 따라 상부상조하고 있으며 생명력은 기(氣)와 혈(血)이 순환함으로써 이루어지며 365의 經穴(經穴)로 이루어진 12 經絡(肺經, 大腸經, 心經, 小腸經, 心胞經, 三焦經, 胃經, 脾經, 膀胱經, 腎經, 膽經, 肝經)을 따라 氣가 움직이며 이를 따라 血이 움직인다고 보고 있다. 조선시대의 의학서적인 鄉藥集成方과 東醫寶鑑과 제중신편(濟衆新編)에 나타난 관

절통에 관한 문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鄉藥集成方の 脚氣門에서는 비(脾)와 신(腎)의 두 經絡이 허약한 사람이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몸을 움직이는 사이에 풍(風), 한(寒), 서(暑), 습(濕)의 사기(邪氣)가 몸에 침범하여 돌아다니기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무릎과 정강이가 아프고 무릎에서 발까지 감각이 둔해지고 저리기도하고 서물서물하는 것이 마치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고 발가락과 정강이가 으쓱으쓱하고 시큰거리면서 아프기도 하고 구부러들고 약해져서 잘 걸을 수 없게되고 약간 붓기도 하고 몹시 시리기도 하고 붓기도 하며 이를 症狀別로 서술하여 각각의 處方을 기록하고 있다.

제중신편(濟衆新編)을 보면 팔다리는 위에 속하고 모든 양의 근본이 되는데 심(心)과 폐(肺)에 사기(邪氣)가 있으면 양쪽 팔꿈치로 흘러 아프고 脚氣로 인하여 다리와 무릎에 힘이 없고 뻣뻣하고 힘줄이 뒤틀리고 붉게 부어 아프다고 하고 있다.

허준(許浚)에 의해 편찬된 東醫寶鑑을 보면 팔다리로는 12경맥(經脈)이 走行하기 때문에 팔다리증상은 주로 經絡走行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장부(臟腑)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 폐(肺)와 심(心)은 양팔, 간(肝)은 겨드랑이, 신(腎)은 무릎과 연계되어 있다. 경락(經絡)에 풍한습사(風寒濕邪)가 침범되면 근맥과 기육, 관절, 뼈가 아프며 이는 현대의학적으로 류머티스성관절염, 류머티스양 관절염, 골관절염, 신경통, 신경염일 때 증상이 나타난다.

팔다리의 뼈마디의 아픔은 풍증(風症), 한증(寒症), 습증(濕症), 열증(熱症), 습열증(濕熱症)으로 나누어 그 症狀이 다르며 이에 따라 치료를 한다고 한다. 風邪가 경락에 침범되면 陽邪이므로 여기저기 이동되는 특성이 있고 寒邪가 경락에 침범되면 陰邪이기 때문에 한곳에 머물러 있고 습사가 경락에 침범되면 점착성이 있기 때문에 아픈 부위가 이동되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되며 날씨가 흐린 날에 이러한 증상이 심해지고 뼈마디가 變形된다. 열성체질이거나 양기가 왕성한 체질인데 풍한습사(風寒濕邪)를 받으면 이것은 열로 전변되어 뼈마디가 벌겋게되어 붓고 아픈 것이 열증상과 함께 나타난다. 외감습열사가 침범되거나 습(濕)이 성한체질인데 열사가 경락에 침범될 때 습사가 오래 머물러서 열(熱)로 전변되어 경락이 막혀 아픈 것으로 뼈마디가 벌겋게 붓고 아프며 마비감(痲痺感)이 있다.

풍습통을 류마치스통(痛)이라고도 하는데 풍습통은 어떤 한군데의 관절이나 근육에 국한되어 발생하는 국한성질환이 아니고 온몸에 걸쳐 발생하는 전신성 질환이다. 급성으로 오는 것은 극소수이고 거의 만성으로 시작된다. 아직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풍사(風邪)와 습사(濕邪)의 침습이 상당한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김상직, 1995).

위의 문헌에서 보듯이 한의학에서는 관절통은 風寒濕邪와 관련이 있으며 주로 땅의 차고 더운 풍습(風濕)의 사기(邪氣)에 의해 생겨난다.

바람과 추위(風寒)와 관련하여 산후문(產後門)에서는 뼈마디의 통증과 산후조리와 관계를 말하고 있다. 향약집성방(鄉藥集成方)에서는 바람과 추위를 가리지 않으면 이로인하며 손발과 허리, 넓적 다리가 시큰거리며 무겁고 시리며 아프다고 하면서 뺏속까지 찬바람이 들어오는 느낌을 주며 치료하기 힘들다고 하였다.

ㄴ. 西洋醫學의 觀點으로 본 關節痛

서양의학에서는 관절통은 관절과 그 주위의 통증으로 주로 류머티스관절염, 골관절염 등이 있을 때 일어날 수 있다.

관절염(Arthritis)은 류마티스란 말에서 비롯되었다. 류마티스란 희랍어로 “류마(rheuma)”에서 유래된 말로 기원전 4세기경 히포크라테스가 ‘병을 일으키는 나쁜 액성물질이 흘러간다’이라는 뜻으로 기술하였다. 고대 그리스 의학에서

는 어떤 알 수 없는 액성물질이 뇌(腦)에서부터 흘러 내려와 병을 일으킨다고 믿었고, 이러한 물질이 관절에 내려와 관절염을 일으킨다고 생각하였다.

관절염(關節炎)이란 관절에 염증을 일으키는 현상을 말하고 염증(炎症)이란 병든 부위에 부종(浮腫), 홍조, 발열(發熱), 동통(疼痛)과 같은 병리학적인 반응을 특징으로 한다.

골관절염(骨關節炎)은 흔히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나타나기 때문에 퇴행성(退行性) 관절염이라고 부르며 노화과정에서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의학적 치료가 필요없다고 할 수 있다. 마모(磨耗)와 파열(破裂)현상으로 인하여 뼈의 양쪽 말단부위에 있는 물렁뼈인 연골조직 소실되면 한쪽 뼈의 표면이 관절면에 닿게되고 다른 쪽 끝의 뼈도 관절면과 맞닿게 되어 관절표면(關節表面)의 탄력성(彈力性)을 減少하게 된다.

관절은 두 개의 뼈가 서로 맞닿는 연결부위에 있다. 관절의 일차적 기능은 뼈의 움직임을 원활히 하는데 있다. 人體에는 약 68개의 관절이 있고 관절 및 그 부속기관은 연골, 활막, 점액낭, 기육, 건과 인대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환자들이 ‘관절이 아프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중 한 곳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이상헌, 1994).

관절염 환자들은 변형된 조직을 움직이거나 체중(體重)을 부하(負荷)할 때 휴식시보다 통증을 더 느끼게 된다. 그 외에 정상적인 관절 가동범위를 수동적으로 움직일 때 나타나는 저항인 관절의 뻣뻣함은 관절을 장시간 움직이지 않을 때 발생하므로 수면후(睡眠後) 아침에 가장 심하게 경험하는데 류마티스 관절염의 경우에 대체적으로 아침에 뻣뻣함이 사라지는 기간이 60분 정도까지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Rhind, Unsworth & Haslock, 1987).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은 심한 통증과 關節의 變形, 근육(筋肉)의 위축(萎縮)으로 활동이 저하되기 쉽고 전

신권태, 비정상적인 피로, 발열, 빈맥, 쇠약, 전반적인 不便感 등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통증, 관절경직, 허약감은 여가활동, 일, 일상생활 수행활동을 심각(深刻)하게 制限한다(Ander-son, 1985). 이러한 활동제한으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社會적으로 孤立되고, 우울과 분노 등의 심리적 어려움을 겪게 되며 自尊心이 상처(傷處)를 입어 삶의 질이 저하된다(김종임, 1994). 통증은 우울을 예측하는 요인이지만 통증이 우울을 일으키는 영향은 대응기전의 사용에 영향을 받는다(Brown, Nicassio, & Wallston, 1989). 문미숙(1994)은 통증정도가 심할수록 희망적 대응양상을 보이지 않았고 불쾌감 정도가 심할수록 否定的 對應을 많이 한다고 하였다. 일상활동시 불편감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정도가 심하고, 일상활동시 불편감 정도가 심할수록 부정적인 대응양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였다.

관절통은 관절염을 앓고 있는 사람의 가장 큰 문제로 주로 손상과 염증을 일으킨 관절에 통증이 생기거나 관절이 손상되면 근육은 손상된 관절을 보호하기 위해 긴장되고 약하기 때문에 젖산이 축적되어 있어 통증을 일으키게 된다. 이러한 통증은 두려움과 절망감을 일으킨다. 관절통의 원인인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퇴행성 관절염의 원인이 아직도 완전히 규명되지 못하였고 또한 질병을 완치시킬 수 있거나 질병의 진행을 막을 수 있는 치료방법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이다(이상헌, 1994).

다. 關節痛의 원인지각(原因知覺)

무슨 사건에 대한 원인지각(原因知覺)은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는데 중요 요인이다. 특히 불치의 병, 예기치 않았던 不幸한 일이 일어났을 때는 더 많은 원인지각을 유발한다(Weiner, Kucla, 1970 ; Wu, 1973 ; Wong, Weiner, 1981).

질병의 원인에 대한 지각(知覺)은 주관적이고 각자의 개인적인 성향에 따르지만 전통적인 文化的 觀點(김두중, 1981, 김광일, 1984), 宗教

的 觀點이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의 傳統的인 文化-宗教적 觀點에는 무속적 요소나, 불교, 도교, 유교적 요소를 포함하게 된다(최준식, 1995). 즉 원시시대에는 질병이 정령, 악마의 힘에 의한 것으로 악정(惡精)과 같은 것이 체내에 침입함으로써 병이 생기고 이를 체외로 뽑아냄으로서 질병이 치료된다고 보아 적당한 무술적인 주술로서 질병의 치료를 피하였다(김두중, 1981). 佛敎의 유입은 삼국시대의 질병관에 영향을 미치는데 불교에서는 精神世界와 物質世界의 不調和로 얻은 업보 때문에 질병이 발생한다고 보았고, 道敎는 우주의 질서를 음양과 오행설로 설명하였는데 질병이란 바로 이 陰陽五行의 不調和로 자연성과 상성(上性)을 해쳤을 때 발생한다고 보았다.

조선시대의 동의보감의 내경편(內景篇)에서는 臟器의 질병과 정신을 포함하였으며, 마음을 다스리지 않았을 때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전제하에 활동, 휴식, 섭생, 성생활의 도가 지나치면 자기 스스로 조절할 수 없으므로 질병이 생긴다고 보았다(허준, 1966 ; 이영자, 1990).

최근의 연구를 살펴보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이 자신의 병의 원인을 인식하는데 유전적인 유약함을 원인으로 보는 體質論, 특별히 원인을 알수 없고 질병의 경험을 피할 수 없다고 지각하는 運命論, 육체적인 과로로 인하여 생겼다고 지각하는 肉體的 過勞起因論, 심리적인 스트레스로 인하여 생겼다고 지각하는 心理的 스트레스起因論, 상대적인 영양결핍으로 생겼다고 지각하는 영양결핍론(營養缺乏論)의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이 중에서 체질론에서 습한환경, 가사일, 출산 등의 요인이 질병을 유발하였다고 지각하였다(은영, 1996).

세계의 文化를 7가지로 나눈 홉스테드의 분류에서 우리나라를 여성성의 중간인 나라로 분류하였지만 대부분의 사회학자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고 오히려 男性性이 강한 文化라고 말하고 있

다(Geert Hofstede, 차재호역, 1996) 男性은 자기주장적이고 경쟁적이며 거친 것으로 간주되고, 女性은 대체로 가정과 아이, 그리고 사람일만을 돌보는데 더 관심을 두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역할 형태는 임신과 수유 때문에 적어도 이 기간중에는 아이곁에 머물러 있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性文化에서 두드러진 것으로 家父長的인 文化를 들 수 있다. 가부장적인 문화란 남성들에 의한 여성지배(Hartman, 1976; 최봉영, 1997)를 일컫는데 가부장제의 물질 기초는 여성의 노동력에 대한 남성의 통제에 있으며 남성들이 비록 위계적이지만 여성을 지배할 수 있도록 相互依存과 연대(連帶)를 행하는 사회적인 관계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남성과 여성의 役割의 차이(差異)는 여성환자들의 경우에 환자로의 이행이 남성에 비해서 느리게 진행되고 환자 역할로 인한 役割免除가 이루어지기보다는 오히려 사회적인 일탈자(逸脫者)로 낙인이 찍히게 되어 결국 환자 역할을 통한 二次的인 獲得(휴식, 경제적인 이익 등)보다는 병으로 인한 一次的인 상실(喪失)이 더 큰 경험이 된다(Conner, 1985)고 하였다.

또한 여성의 성품은 남성보다 돌봄에 적당하다거나 여성이 우선되는 돌봄 담당자라거나 여성의 돌봄에 대한 가치부여보다는 남성의 돌봄에 더 큰 社會的 價値가 부여되고 있어 '여성은 돌보는 者로서의 役割만을 부여하고, 돌봄을 받아야 할 대상(對象)으로는 간주하지 않는다'(김남선, 1993). 즉 질병의 原因知覺에서 임신, 출산, 산후조리의 과정에서 적절한 휴식과 돌봄을 받지 못했다는 知覺이 병의 원인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성이 임신과 출산을 생의 주기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인식하지 않고 여자들의 당연한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사회속에서 적절한 의료적 수혜를 받지 못했다.

라. 한국에서의 關節痛의 治療 實態

히포크라테스를 비조로 하는 서양의학에서의

액체병리설, 세균설 바이러스 학설 등 역사 변천에 따라 달라졌고 동의학에서의 폐비, 신비, 심비 등 장부의 기능변조에서 오는 내인설과 풍비, 습비, 한비 등의 외인설은 서양의학적 견해와 유사하면서도 상이한 점이 다분히 있었다. 이는 동서양의 시·공간적 격차 때문에 같은 병증을 진료함에 그 견해와 방식을 달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이중적 의료 특성상 西洋醫學과 東醫學的 治療와 더불어 民間療法을 하게 된다.

통증을 느끼면서 통증을 줄이거나 없애기 위한 치료를 찾게 되는데 우선 病院을 통하여 수술, 투약, 물리치료나 약국의 처방을 받는 것, 東醫學的 治療(한약, 침, 수지침, 부항, 뜸, 지압), 民間療法으로 약초, 담방약, 오리, 염소, 고슴도치, 뱀, 사슴뺨, 두더지 아이테, 오리탕, 홍삼, 로얄제리, 인삼, 고양이, 지렁이 토룡탕, 호랑이뺨, 호랑이 고기, 홍어와 오동나무 삶은 물 등과 건강보조식품(이은옥, 1994), 종교적 치료로 안수, 기도원 등이 있다.

대학부속병원에 관절통과 요통으로 통원치료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은옥, 1987)에 의하면 아무런 방법을 쓰지 않는 대상자가 29%(151명), 병원치료, 한방치료, 자가 및 민속치료를 받는 대상자가 71%(369명)이었고 그중 병원이용이 33%, 한약이나 침술 등의 한방치료이용이 27%, 자가 및 민속치료법이용이 18%였다.

2) 文學과 藝術로부터의 經驗的 描寫

文學作家 자신이 묘사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연구자는 참여 여성의 경험에 대한 그들의 묘사를 돕고, 또는 그 경험을 상기시키는 예술적 實例를 그들이 나눌 수 있는지 질문하였다. 이에 대한 이론적 근거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경험에 대한 묘사로 보이는 어떤 시나, 노래, 어떤 특별한 책과 매우 쉽게 관련지을 수 있다는 것

이다. “現象學은 우리에게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친숙하고 가장 자명한 것을 구조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우리의 直接的인 一般的 經驗에 호소한다. 인간행위, 행동, 의도, 경험 등은 우리가 생활에서 마주치는 그대로 되살리는 생생한 기술을 구성하기 위해서이다. 그런 까닭에 인간과 학자는 시인, 작가, 예술가, 카메라맨 등의 작품을 즐겨 이용한다. 왜냐하면 바로 이러한 자료 속에서 상황 속의 인간으로서 인간존재를 발견할 수 있고 이러한 작품속에서 인간경험의 다양성과 가능성을 압축하고, 초월된 형태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벤메넨, 1990).

우리가 文學을 참고하는 이유는 문학과 다른 예술적 근원은 우리의 개인적 매일의 경험들의 순환의 범위를 일반적으로 표출하는 풍부한 경험과 통찰력을 우리에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른 문학에서 서술된 현상은 우리의 선입관에 해당하는 많은 주제 또는 질문의 해석적 방법에 이미 표현된 자료를 포함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문학적 깊이를 지연시킨 연구자는 偏見을 最小化하기 위하여 자료수집이 완전할 때까지 시 3편, 수필 1편, 수기 1편, 소설 6편, 사진 11작품을 문헌 고찰하여 주제를 추출해냈다.

가. 詩部門

시(詩)는 생생한 진실감을 읽지 않고 표현될 수 없는 인간경험의 어떤 측면을 언어를 통해 표현할 수 있다(벤 매넨, 1990). 따라서 시에 나타난 주제어들은 특정한 삶의 한 단면(斷面)을 압축(壓縮)하여 生生하게 표현해 줄 수 있는 것이다.

조아정(1994)의 시 『고통의 터널』에서는 관절통을 속빈 수숫대같이 바늘침으로 고문하듯 찌르는 듯 하였고 죽음을 택하는게 나를 만큼 참기 힘들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한병호(1988)는 그의 시 『병원』에서 다리의 아픔을 참지 못하는 것으로 또한 주사와 약 그

리고 수술까지 하였으나 쉽게 낫지 않는 것으로 나타내었다. 또한 자신의 아픔을 혼자서 울면서 참으며 다리가 없는게 나으므로 끊어버리고 싶다고 호소하고 있다.

나. 隨筆部門

수필(隨筆)은 청자연적(靑瓷硯滴)이며 난(蘭)이요, 학(鶴)이다. 수필은 청초하고 몸맵시 날렵한 여인이 걸어가는 숲속으로 난 평탄하고 고요한 길이다. 또한 수필은 마음의 산책으로 그 속에는 인생의 향취와 여운이 숨어 있다(피천득, 1994). 따라서 수필속에 있는 관절통의 경험은 나름대로의 독특함을 나타낸다.

헤르만 헤세는 스위스 바덴의 한 요양원에서 쓴 그의 수필 「아름다운 죽음에 관한 사색」에서 ‘관절통으로 고통 받는 자신을 죽음과 형제라고 비유하면서 자신이 겪는 관절통의 만성적이며 낫지 않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관절통으로 인하여 활동의 제한을 자신과 친구 니나를 통하여 ‘몸을 움직일 때 시간이 많이 걸려 활동을 꺼리는 면과 검게 그을린 주전자와 말라비틀어진 커피를 통하여 가사일도 소홀히 하게 되었음’을 표현하고 있었다.

관절통을 경험하는 환자들은 ‘자신 이외에는 누구에게도 이러한 고통을 말할 수도 관절통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신을 돌보아줄 사람이 없다는 것과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하며 청춘이 사라진 후 온 것으로 고통을 견뎌내는 것’으로 묘사하였다. 나이와 같이 찾아온 관절통을 ‘노인의 과업은 고통과 죽음을 견뎌내는 것’이라고 하였다.

다. 手記

강형희(1993)의 저서 『나는 성인병의 실체를 보았다』에서는 자신이 성인병으로 20년간 투병해오면서 보고 느껴온 관절통의 경험으로 노폐물로 인하여 관절통이 생겨서 나타나는 무릎의 색깔 변화, 참을 수 없이 아픈 경험, 어떤 약과 처치를 받아도 쉽게 낫지 않는 면, 관절통을 조

절하기 위해 침 등의 여러가지 요법을 시도하는
면, 여성들이 관절통을 가지고도 쉬지 않고 일
을 하게 됨을 서술하고 있다.

라. 小說部門

小說 속에서 우리는 그러한 기본적인 생활경
험을 마치 자기가 하고 있는 듯이 경험한다. 우
리자신을 小說의 主人公과 同視하면서, 우리
는 직접 행동하지 않으면서도 그의 느낌과 행
동을 체험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정상적으로 경험
하지 못할 상황, 사건, 감정 등을 체험할 수 있
다. 훌륭한 소설을 통해 우리는 인간조건의 특
정한 측면들에 대한 통찰을 획득할 기회를 제공
해 주는 경험을 겪을 기회를 갖게된다(벤 매년,
1990).

김영현(1990)은 『엄마의 발톱』이라는 소설에
서 주인공 명규라는 인물을 통해 자신의 어머니
의 관절통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찬바람이
도는 듯한 느낌으로 아궁이에 불을 지펴서 이를
달래야 하는 것과 이러한 관절통을 느끼면서 죽
음을 생각하게 되는 것과 이제 쓸쓸함을 느낀다
고 표현하고 있다.

국내에서 대중성과 문학성을 높이 인정받고
있는 소설 중에서 도서지역 여성의 관절통과 관
련된 조정래(1986)의 『태백산맥』에서는 삶의
힘든 노동의 세월이 삭신 마디마디를 갈아 내려
갔다고 표현하였고, 도서지역 여성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하는 바지락 캐는 일을 묘사하고
있다. 등장인물 중 좌익인 하대치의 아내인 들
목댁을 통하여 우익의 우세해져 남편이 도피한
후 시아버지가 매질을 당해 죽어 소작을 잃게
되자 바지락을 하기로 결심하는데 바지락 캐는
일을 여성이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어려운 일로
천하고 힘든 일이라고 하였다. 도서지역의 경우
대부분의 여성들은 이렇다할 학력도 없고 자본
도 없기 때문에 직업을 구할때에 있어서 선택할
여지가 없다. 즉 자본이나 어떤 특수한 지적능
력을 요구하지 않는 바다에서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쉬운 것이며 다른 직업은 생각하지도 못한
다.

도서지역여성들은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해서
자신의 관절통이 생겼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동의학적으로 風寒濕邪로 인하여 생길 수 있으
므로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다음 문헌에서
도 여성들이 생의 주기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인
식되지 않고 여자들의 당연한 과정으로 받아들
이는 사회속에서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하였다고
서술되어 있고 이러한때의 증상들이 서술되어
있다.

박완서(1990)의 『미망』에서는 아씨를 통해
폐가에서 남 모르게 아기를 낳고 이를 숨기기
위해 아이를 낳자마자 다시 집으로 돌아오면서
다리에서 뼈가 녹아내리고 지느러미가 된 것 같
은 경험을 하게되고 다시 시택으로 돌아가 산후
조리도 못한 채 무거운 금줄을 들어 자궁탈이
된다. 한국의 여성들은 산후조리를 해야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기 낳은 날로 물동이 지고 밭
하고 힘든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음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의 도서지역의 여성들은 제대로 치료
를 받지 못했다고 보고하였는데 그 이유를 살펴
보면 첫째 의료시설이 보건진료소 뿐이며 의사
가 있는 보건지소들은 모두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고 종합병원은 인천으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의료비와 교통비, 생활을 위한 하루 일당 모두
손해를 보기 때문에 쉽게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
다. 둘째, 생활고로 인하여 의료혜택을 받기 보
다는 살기 위하여 바지락을 해야하고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질병치료는 이차
적인 것이다. 셋째, 한국에서의 여성의 지위는
三夫從事라하여 시집가기전에는 아버지를 따르
고 시집가서는 남편을 따르고 남편이 죽으면 아
들을 따르라고 하듯이 아주 낮은 지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남성의 지배하에 있었던 가부장제
하에서는 환자역할로 인한 역할 면제가 이루어

지기 보다는 병으로 인한 일차적인 상실을 더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아픈 것을 드러내지 못하게 된다.

마. 寫眞(사진) 作品

오늘날 이용되고 있는 모든 복제수단들 중에서 사진은 가장 명백하고 편견이 없는 것 중의 하나이다.

우리의 시대는 온갖 잡동사니 속에서 예술을 만들어내고 사진은 그 조작을 통해 우리의 기억 속에 크게 만들어진 콜라주와 같은 역사적인 유물을 형성한다고 수잔 손탁(Susan Sontag)은 적절하게 지적한바 있다. “물론 사진은 인공적인 산물이다. 그러나 그것이 호소력을 갖는 것은 어지럽게 된 세상에서 발견한 오브제(세계의 우연한 단편들)의 상태를 사진적 유물로 유지시키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진은 실물의 매력과 예술의 명망을 동시에 이용한다. 사진은 환상의

구름이며 정보의 단편들이다.” 사진은 풍요롭고 소비 지향적이지만 불안정한 사회의 전형적인 예술 즉 대중문화의 필수적인 도구가 되었다.

강렬한 리얼리스트인 윤주영은 어떤 순간의 어떤 인간의 움직임에 포착하여 조용하면서 강렬한 호소를 하고 있다. 또한 그 속에 따스한 휴머니즘이 흐르고 있다. 흘러간 우리들의 어머니상을 담고 있다(韓雲史, 1997).

고통 받고 설움 받는 사람, 역경을 딛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로 그는 갯벌에서 일하는 여인들, 바다 깊은 물 속에서 일하는 해녀들을 나타내고 있다(安章憲, 1997).

이 작품에서는 사느냐 죽느냐의 절박한 갈림길에서 뼈가 부서지는 아픔을 무릅쓰고 일터로 나간 여성들이 겪었던 눈물과 땀과 한숨의 세월을 다소 기억하게 해주며 고난의 세월과 무더진 손가락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눈보라〉



〈일 없으면 못견디는〉



〈눈내리는 개펄〉



〈밀려드는 조수〉



〈하루일을 마치고 …〉

3) 있는 그대로의 체험탐구—研究者 自身の 經驗記述

현상학적 탐구는 개인의 경험을 출발점으로 하여 연구자 자신의 생활경험을 직접 접근할 수 있다. 나의 경험이 우리의 경험일수 있는 한에서 현상학자는 특정한 경험적 의미를 반성적으로 인식하고자 한다. 어떤 현상에 관한 자기 자신의 경험의 구조를 인식함으로써 연구자는 현상에 따라서 현상학적 연구의 모든 다른 단계들에 접근하기 위한 단서를 얻을 수 있다(벤 매넨, 1990).

“여성의 관절통에 대한 관심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나는 사랑하는 어머니가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관절통을 호소하던 것이 기억이 난다. 그녀는 “다리가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겠다”, “이런 아픈 다리는 아예 없는 게 낫겠다”고 연구자에게 자주 말하였다. 또한 심한 관절통을 경험할 때에는 밤새 잠 못 이루었고 그럴 때마다 이불 속에 누워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럴 때마다 본 연구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러냐 보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아프기 마련이지, 그냥 비가 오면 아프냐 보다, 엄마의 팔다리가 아프냐 내일은 눈이나 비가 올러나보다 하고 나이가 들어감의 지혜로만 여기고 목욕탕에 가서 찜질하면 금방 낫겠지, 하고 간과해버렸다.

사실 본 연구자는 간호학과 입학 때부터 어머니와 아버지는 커다란 기대를 했었다. 집안에

병원에서 일하게 되는 의료진이 한 사람 있다는 것이 ‘앞으로 있게될지도 모르는 병치레 때는 걱정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였던 것이다. 간호학과 졸업후 E의료원 일반병동간호사로 근무하면서 어머니는 비올 때마다 팔 다리의 관절이 아프다고 동통호소를 하였다. 당시 나는 어머니의 관절통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안다고 생각했다. 처음에는 나이가 있어서 그러려니 하고 지나쳤다. 그도 그럴 것이 동통을 호소하면서도 집안일이며 외출이며 별로 일상생활을 하였고 자녀들의 아침식사와 출근을 이른 새벽에 일어나 꼭꼭 챙겨 주는 일을 한 번도 거르신 적이 없었다. 그러나 어느 날 아침 본 연구자는 “미안하다. 오늘 아침을 하지 못했어, 밤새 다리가 쭈셔서 물찜질을 했는데…”라고 말하시는 부시시한 어머니의 얼굴에서 고통의 눈물을 볼 수 있었다. 긴긴 밤을 홀로 관절통으로 잠을 못 이루고 물찜질을 하다가 지친 모습이었다. 다리관절의 동통은 점점 심해져 계단을 오르내릴 때 힘이 많이 들어 계단이 있는 육교나 지하철은 피하였고 심지어는 먼 거리의 도보는 꺼리겨 매일 가던 시장도 일주일에 한 번이나 필요시 한 번 정도만 가게 되었다. 게다가 관절통으로 입맛이 떨어져 식사준비나 빨래하기 등 가사일에도 소홀하게 되었다. 어머니는 “내 자신이 점점 지치고 일도 하기 싫다. 무슨일이든 신경질만 나고 삶의 희의가 느껴진다”고 하였다.

병원에서 진료후 退行性 關節炎이라는 진단을 받고 그제서야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를 하였다. 현재 재활요법으로 수영을 하고 있는 중으로 생활의 활력을 찾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본 연구자에게 있어 적지 않은 충격이었다. 분명히 중년의 변화를 겪은 후 읊 수 있는 퇴행성 관절염이 존재할 수 있음을 관절통 호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면 다 그러려니 하고 관절통을 간과하였던 것이다.

또한 대학교 시절 간호상담부의 일원으로 인

천광역시 내 위치한 S도(島)에 하계봉사차 방문하게 되어 1주일을 같이 생활하게 되었지만 이때는 S도의 특성과 주민의 건강검진에 관심을 두었을 뿐 이러한 관절통의 경험을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기고 지나쳐 버렸다.

그러나 석사과정을 진행하는 동안 건강증진교육차 다시 S도에 방문하게 되었을 때 그곳의 대부분의 성인 여성들이 오랫동안 관절통을 경험하고 있었고 의료진이 이 섬으로 들어올 때마다 이러한 관절통을 완화하기 위해 새로운 약을 구해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찾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절통으로 고통받는 대상자들에게는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가족들은 이를 노화의 과정으로 당연시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경험을 하면서 ‘나는 관절통의 경험을 하는 여성들을 간호하는 간호사의 한 사람으로써 그리고 여성으로서 어떻게 간호에 임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質問)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은 연구자인 본인의 일기(日記)에 기록되었고, 연구 착수 시는 물론 연구가 완결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4) 研究 參與者의 個別體驗記述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에서 강조하는 것은 언제나 體驗의 意味이다. 인간경험의 의미나 의의를 인간경험 전체의 맥락 속에서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경험과 그에 관한 반응을 빌리는 것이다(van Manen, 1990). 그러므로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을 진솔하게 기술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들을 참고하는 것이 필요하다(신경림, 1995).

(1) 研究 參與者의 選定

통증의 의미는 개인 및 사회문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므로 한국여성의 관절통의 동통체험은 독특할 것으로 가정하고 이러한 韓國傳統 漁村 社會의 文化가 남아 있는 곳인 S도를 지정하게

되었다.

S도(島)는 인천연안에 있는 2개리, 250가구, 인구 약 750명의 섬으로 인천에서 보통 여객선으로 약 1시간30분이 걸리며, 인근에 대부도에 사는 약 10분간의 뱃길로 연결되어있다. S도 지역의 유일한 의료시설은 보건진료소이며, 보건진료원(간호사)이 유일한 의료인이다. 의사가 있는 보건지소들은 모두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으며 종합병원은 인천으로 나가야만 한다. 주민들은 배 운행시간 관계로 당일로 인천의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돌아올 수는 없으며 최소한 2박 3일의 일정을 계획해야 한다. 초등학교(분교)와 유치원만이 유일한 교육 기관이며 그 이상의 교육은 인천으로 나가야만 가능하다.

도서주민들의 가구당 연평균 소득은 800만원 내외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S도의 경우 수산물 생산이 바다와 직결되어 있고, 인구의 반수 정도는 포도, 논, 밭 등 농사를 겸하고 있다. 地域 特性으로 인해 섬사회는 도시에 비하여 이동성이 적고 따라서 주민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도서민이 형성하는 촌락은 도시의 경우보다 훨씬 소규모로 수십 호씩 모여 10개정도 형성되어 있다.

연구 참여자는 인천시 S에 있는 관절통을 호소하는 환자들에게 전화로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관심을 나타낸 열 명의 참여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였는데 참여자 모두 집에서 만나기를 원하였다.

만날 장소와 시간은 참여자가 인터뷰할 장소를 선택하고 방해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적인 곳이어야 한다. 이것은 낯선 사람을 만나서 친숙하고 믿을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하는데 도움을 준다(Morse, J. M., 1997).

질적 연구도 양적 연구와 마찬가지로 표본의 크기가 많을수록 좋지만 양적 연구와는 달리 질적 연구는 비구조적 심층(深層)면담을 통해 자료가 포화될 때까지 깊이 있는 진술을 이끌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질적 연구방법중 하나인 현상학적 연구방법에서 표본크기에 대한 결정은 자료가 포화될까지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수집을 위하여 면담을 하는 동안 11번째 참여자로부터 이미 면담한 10명의 다른 참여자의 진술내용과 반복(反復)되었다. 그후 2명의 참여자를 더 면담하였으나 더 이상 새로운 체험이 나오지 않고 반복되어 10명으로 표본의 크기를 정하였다.

(2) 資料蒐集

현상학적 연구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정확한 서술이고, 상황 그 자체가 서술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인간의 의식이 드러내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경험의 서술을 통해서이다. 참여자와의 심층면담은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錄音)하였으며 어느 한 경우에는 참여자의 머느리가 심층면담에 참여하므로써 참여자의 체험담 서술을 더욱 생생하게 이끌어갔으며 참여자의 체험내용을 재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

본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은 1998년 4월 2일부터 5월 16일까지 1차, 2차의 비시지적, 비구조적 심층면담 및 참여 관찰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참여자의 심층면담내용은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되었고 면담시간은 약 20분에서 40분이 소요되었다. 면담시작은 폭넓은 일반적인 개방형 질문인 '관절통 경험은 어떠하였습니까?'로 동통 경험을 서술하도록 하였다.

연구자는 면담내용을 녹음하였고, 글로 옮겨 쓴 후 컴퓨터 디스켓에 저장하여 복사된 것을 자료분석에 이용하였다. 대부분의 사례에서 면담을 글로 옮기는 일은 본 연구인이 학부생 1인의 도움을 받아 수행하였으며 면담내용은 디스켓으로 옮기는 사람과 연구자가 주의깊게 들었고 다음의 2차 면담을 계획하였다. 2차 면담시에는 1차 면담내용동안 옮겨진 자료를 고찰할 수 있도록 하여 애매모호한 부분을 재확인 하였다.

이는 S도의 특성상 바지락을 캐는 시기인 조금과 사리의 각각 6-7일 정도이고 이 시간은 물이 빠지는 시간에 맞추어 새벽에서 오후까지 매일 한시간씩 느려지고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거의 빠지는 일이 없었다. 바지락을 캐 오후에는 모두 힘들어서 수면을 취하거나 식사후 수면을 취하기 때문에 午前에만 인터뷰가 가능하였고 가족들이 인천이나 그 밖의 육지에 사는 경우가 많아 바지락을 캐는 날짜를 제외하고는 육지로 나간다거나 인천에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터뷰 시간을 맞추기가 매우 어려웠다.

(3) 연구의 信賴度와 妥當度

질적인 연구의 방법론적 정확성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4가지 논점-사실적 가치(truth value), 적용성(applicability), 일관성(consistency), 중립상태(neutrality)를 고려해야 한다(Guba & Lincoln, 1981).

첫째, 사실적 가치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각한 경험이나 인간현상에 존재한다. 경험에 대한 서술이 경험을 한 사람에게 믿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점이 일차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에게 면담이 기록된 내용을 보여주어 연구자가 기술한 내용이 참여자의 경험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 信賴性을 확인하였다.

둘째, 연구상황 외부의 맥락에서 자료의 '적절성(fit)'에 의해 평가되는 질적 연구에 대한 適用性이다. 또한 더 이상의 새로운 자료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자료가 심층적으로 포화될 때까지 수집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동통에 관한 체험의 주제 의미는 참여자들의 일상생활세계를 토대로 하여 추출된 것이며 연구결과와 연구 참여자의 맥락의 접합성을 유지하였다.

셋째, 결과에 대한 一貫性은 자료수집과 타당도에 기여하는 예술작품에 대한 실존적 연구의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결과는 자료수집동안 각 연구 참여자들이 진술한 내용에

서 일관성을 보였으며 연구가 끝났을 때 일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연구 참여자의 진술 내용은 소설과 수필에서의 결과와 일관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中立狀態는 연구 과정에서 편견으로부터의 자유와 관련된다. 과정에 대한 기술과 명시를 통해 연구자는 개인적 편견을 중지하는 것을 시도하였다. 또한 문장을 명백히 하고자 하는 동안 더 나은 서술 정교함을 위해 참여자의 서술을 통해서 풍부함과 질을 증가시켰다. 연구자의 세계에 존재하는 것으로서 현상의 관찰을 위해 다양한 방법의 이용은 정교함, 명확함, 결과를 지지하는 것을 도왔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연구된 결과가 서술되었으며 연구결과를 되도록 많은 사람에게 읽힘으로써 본 연구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4) 연구 참여자에 대한 倫理的 考慮

연구자는 연구의 감수성이 인간의 權利(Sobel, 1979)에 對한 保護를 참여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인정하였으며, 이것은 연구진행에 대한 계획에 대한 계획에서 일반적으로 고려하였다.

처음에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과정을 설명하고 연구 동안 어느 때라도 철회할 수 있는 동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고, 서면동의서의 거부감으로 인하여 구두 동의를 먼저 받은 후 문맹 1명과 눈이 안보이는 2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7명은 서면화된 同意書를 받았다.

연구참여 동의서에는 연구 내용에 대해 기술하였고, 타당성 있는 동의를 얻기 위하여 이 연구의 참여가 대상자 자신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며 연구의 참여로 인하여 어떠한 비용이나 해(害)가 없을 것과 대상자에 대한 익명(匿名)을 지키며 언제든지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구 참여를 거부(拒否)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3. 解釋學的 現象學 反省

해석학적 현상학 반성의 목적은 어떤 것의 본질적인 의미를 파악하려는 것이지만 현상의 의미나 본질은 결코 단순하거나 일차원적이지 않고 多次元的이다. 체험을 반성한다는 것은 그 경험의 구조적, 주제적인 측면을 반성적으로 분석한다는 것이다(벤 매년, 1990).

1) 主題分析

현상학적 반성은 주제 분석과 본질적인 주제의 두 단계를 거친다. 주제 분석의 단계는 생활 속에서 묘사된 주제적인 측면을 노출, 주제 진술분리, 언어적 변형구성, 예술작품에서 주제 진술을 포함한다. 벤 매년(1990)에 따르면 현상학적 주제들은 “경험에 관한 구조들”이다.

벤 매년(1990)은 어떤 현상의 관점에서 주제를 밝힐 수 있는 두 가지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특징접근법(highlighting approach)이고 다른 하나는 행간접근법(line-by-line approach)이다.

본 연구에서 본질적인 주제를 결정하기 위한 주제 분석은 몇 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졌다. 먼저 참여자들과의 면담을 통하여 녹음한 면담내용을 여러 번 들으면서 그대로 전부 기술하였다. 이렇게 전부 기술된 내용은 A4용지 40매에 가까운 분량이었다. 본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자주 언급한 문장을 확인하고 나열하는 행간 접근법을 사용하였다. 즉, 기술된 내용을 여러번 읽어 관절통의 경험이나 느낌의 측면이 잘 드러나는 문장을 비슷한 의미를 지닌 문장과 관련성 있는 것끼리 주제진술을 분리시켰다. 이러한 단계를 여러번 거쳐 어원추적, 문학, 예술작품, 현상학적 문헌과 관련문헌을 통해 추출해낸 관절통 경험에 대한 의미발견은 다음과 같다.

2) 本質的인 主題의 決定

잘라버리고 싶은 처절함
 뻗속까지 갓바람이 스며들
 산후한풍으로 인한 시련움
 나홀로 감당해야 하는 또 하나의 아픔
 좋다는 거 다해봐도 재발되는 거듭됨
 생활고로 마디마디 아픔도 때때로 잊어버림

위의 6 가지의 본질적인 주제를 확인한 후 현상학적인 기술을 하였는데 문헌과 문학과 예술 작품 등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다양한 현상들을 관절통의 동통체험과 비교함으로써 결정된 본질적인 주제를 바탕으로 현상학적인 기술을 하였다.

잘라버리고 싶은 처절함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경험한 관절통은 바늘로 찌르는 듯하며 시리고 저리고 아무런 감각을 못 느끼며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 내몸의 일부가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고 하였고 이러한 고통으로 수면장애를 호소하였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표현까지 하였다.

다리만 안 아프면 아무것도 다하고 괜찮을 것같은 그런 생각이지 뭐... 아프고 일어나지 못하면 그러면 이놈의 다리 그냥 잘라버리면 시원하겠다는 생각들지... 그래서 정 아플 때는 팔 아픈 게 낫겠다 그런 생각해보는데... 그래도 팔 아픈 거 보다 다리아픈게 낫거든... 아프니까...(사례3)

저리고 쑤셔... 두발목은 나무 발목이고... 저리가 이런데가 막 쑤셔... 밤에는 좀 두러누면 편한데 이게 가끔 쑤신다고 쑤셔서 뻗뻗하면 다리가 쥐나서 들고 주물러서... 주물러야 되... 이렇게 병신되있어...(사례5)

산후한풍으로 인한 시련움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산후조리를 해야 함을 알고 있으나 가사일와 生計維持로 인하여 産後調理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섬의 자연지리적 특성상 습하고 바람이 많고 물이 귀하므로 참여자들은 산후조리를 못하고 생계유지를 위해 차가운 갓떨에서 팔다리를 담그고 차가운 바람과 싸우며 바지락을 케었고 물동이를 지고 물을 길러 갔다오는 것 등의 가사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때 참여자들은 자신의 뼈마디에 스며드는 찬바람을 느끼고 훗날 관절통과 관련이 있다고 표현하였다.

아픈거... 뭐 아나... 그전에 애들하고 피나 나와서 먹을 것 없고 하니께 이런거(바지락)해서 애들 업고 다니고 뭐 추운데 재넘어까지 지게를 양쪽에 한초롱씩 지고 해서 그런거지... 애들놓고 뭐... 지금사람들 같이 한달씩 드러누워서 몸조리하는 그런것도 없고 잠깐 드러눕다 일어나서 물도 받아먹고 빨래도 하고... 그래서 그런거지... 남들이 산후조리못해서 그래서 그렇다, 어쩌도... 그래서 그런건지...(사례3)

뻗속까지 갓바람이 스며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관절통이 갓바탕에서 일을 힘들게 함으로써 생긴다고 생각하고 있다. 즉, 갓바탕의 차가운 바람과 갓터의 차가움과 싸우며 바지락을 캐는 일을 막노동이라고 여겼다. 그들은 눈이 올 때나 비가 올 때나 새벽에도 식사를 거르며 썰물 때 갓벌에 가서 손과 발을 모두 갓벌에 묻고 물이 들어올때까지 팔, 다리, 허리의 동통도 잊어버린 채 정신없이 바지락을 캐고 있었다.

안 아프다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막노동(바지락 캐는 일) 힘든 일을 하니께...

가만보면은요... 그렇게는 안 아프다는 사람은 없나봐요... 그렇게는 다 아프가봐요. 여기는 막노동음, 힘든 일을 하니까 그런 거 같아요. 남자가도 해나갈 수 없는 일을 그냥 두고 두고 천천히 하는 일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시간 내로 가서 하니까... 욕심이지... 너희도 사십킬로 캐고 우리도 사십킬로 캐고, 들이사는 사람이나 혼자사는 사람이나 일 당수 호당수 한 호당 사십킬면 사십킬로 오십킬로면 오십킬로 그러니까 많이 켈때도 그대로 힘들고 조금 켈때도 그대로 힘들고 빨리하고 빨리 들어 오니까.(사례8)

나홀로 감당해야 하는 또 하나의 아픔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오랜 세월 전부터 이러한 관절통을 느껴왔지만 그때는 가족을 위하여 너무 바쁘고 힘들게 일을 하였을 뿐 자신의 몸을 돌보는 틈이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자녀들을 다 출가시키고 보니 자신의 참기 힘든 관절통을 느끼고 자신의 관절통이 이러한 희생과 봉사의 세월이 남겨준 것일 뿐 자녀들이나 다른 사람들이나 나의 고통을 위해 어떤 일을 해주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있다.

게 수술하는 것도 돈이 있어야 할텐데 돈도 없고... 그러니까 아이들도 다 벌어먹고 살고 그래왔는데 가까스로 먹고 조금 저기하고, 애들 공부시키고 저기 하더니 의사가 자꾸 그렇게 그러니까... 돈 모아둔게 있어야지... 뭐 조금도 다 집도 사 놓은 거 팔래도 팔리지도 않는다고 그러고 뭐 집값도 떨어졌다고 그러고 뭐 집 하나씩 사서 사는 것도 팔아서 살수도 없고. 그렇지 뭐...(사례3)

좋다는 거 다해봐도 재발되는 거듭됨

본 연구의 도서지역 여성 참여자들은 관절통이 낫는다면 병원약, 약국의 약, 한약, 자신의

다리에 침, 뜸, 부항까지 놓으면서 治療의 苦痛도 참아낸다. 또한 약의 효능이 있다면 약이 안전하지도 생각하지도 않고 이름도 모르고 먹어본다. 그러나 관절통은 여전히 계속됨을 느낀다.

한 삼십 년도 더 되었다고 이게... 저기여... 저기, 저 거시기 관절이여. 관절로, 관절로 해서 사회에서도 좋다는 약도 다 해먹어도 안 들어... 관절이여... 나 관절이여, 관절, 첫째 관절, 그래서 그냥 저리고 쭈시고 아주 췌 저리고 죽겠어... 파스 그런 거 안 바르면 그냥 저려서 양쪽에다 다 붙이고... 물찜질도 사놓고 하지, 물찜질도 하지... 뜨거울 때 뿐이여... 고때뿐이여...(사례5)

생활고로 마디마디 아픔도 때때로 잊어버림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사는 S도에서는 男女老少 할 것 없이 죽을 날만 바라보는 사람이외에는 모두 갯터로 간다. 갯바탕으로 바지락을 캐러 가면 섬은 죽은 듯하다. 연구 참여자들은 自身의 生活苦로 어쩔 수 없이 바지락을 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썰물이 올때까지 허리한번 펴지 못하고 갯펄만 보고 정신없이 바지락을 캐기 때문에 팔다리의 관절통은 잊어버린다고 하였으며 이는 윤주영(1997)의 작품인 '일 없으면 못 견디는'과 일맥상통한다.

계속 아픈 거지... 일하고 움직이고 그러면 더 아프지... 곧 많이 놀고서 약먹고 그러면 덜 아픈데... 겨울에도 그렇게 아팠어... 근데 작년겨울에는 놀아도 아프고 일어나지 못해서 이런 거 붙잡고 일어나고... 지나간 겨울엔 조금 낫았거든... 근대 요새 도로 그렇게 아파... 일어날라면 뭐 두손 짚고 그냥 가까스로 일어나고... 일하기 싫은 거보다 아파도 해야 되는 데... 땀기면서 움직거니면은... 더 아파도 할 것은 해야 되니까 해서 아파도 해야지... 돈을

벌어야 살잖아... 뭐 애들이 준다고 그래도... 또 움직일만하니까 곧만 있을 순 없잖아... 동네 사람 다 가는걸... 노인네, 아주 못하는 사람만 남지... 오래는 안하니까... 두시간 잠깐 하고 오지...(사례 3)

4. 해석학적 현상학적인 글쓰기

글쓰기는 연구의 본질이며, 연구과정에서 最終段階이다.

벤 매넨(1990)은 어떤 글쓰기가 논리적으로 강력하다면 그때는 그것이 어떤 명료함을 요구한다고 믿었다. 소위 말하는 그때 그것은 살아 있는 경험을 설명하는 것, 의미 있는 구조 또는 좀 더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실제 겪은 경험에 대한 ‘상호 주관적인 이해’와 현상들을 주어진 것으로 이해하는 작업, 그리고 그 이해 정도를 言語로 表現하는 過程은 많은 시간을 요하고, 묘사와 글쓰기를 통해 의미를 분석하고, 추출하고 선택할 필요성이 있고, 언어의 정교하고 민감한 솜씨를 대신할 대체물은 없다.

연구자는 자료로부터 주제를 분리하고 생활세계의 경험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남김없이 밝히는데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몇 번의 면담을 옮겨 적었다. 더 나아가 이 연구를 수행한 것을 글을 쓰고 다시 고쳐 쓰도록 도와주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도서지역의 여성들은 관절통으로 지새우는 밤 가난했던 젊은 시절과 자녀들을 양육했던 고생스러웠던 과거를 회상해냈다.

도서지역 여성들의 대부분은 타지(他地)로부터 결혼을 해 섬으로 들어와 가난한 섬 생활을 하게 된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돈도 없고 학식(學識)도 없다. 있는 것은 몸뚱이 하나뿐 아무 것도 없었다. 그들은 몸을 담보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을 수밖에 도리가 없었다. 여자들이 바다

에서 할 수 있는 일이란 바지락 캐는 일, 바람불고 추운 개펄에 나아가 차가운 바다물에 손발을 담가가며 조개를 캐는 것이다. 모자와 수건, 속내복에 고무옷까지 잔뜩 입고 개펄에 나아가 보지만 차가운 갯벌에서는 이것은 알몸과 같은 것, 차가운 바람은 여지없이 뺏속으로 파고든다. 두팔과 발을 개펄에 묻고 쭈그리고 앉아 조개 캐는 일, 한 번도 하늘을 볼 겨를도 허리를 한번 펼 수 있는, 옆집아줌마와 이야기 할 시간도 없다. 조금이라도 더 캐려고 정신없이 캐고 나면 썰물이 밀려들어온다. 썰물을 피해 무거운 40kg의 조개를 머리에 이고 혹은 끌고 갯벌을 나온다. 이렇게 섬생활을 하다 자연의 섭리로 아기를 낳게 되었다. 그러나 생활고는 산후 조리할 새도 없이 차갑고 세찬 바다로 산모들을 내몰았다. 바다바람과 싸우며 바지락을 캐고 물동이를 지고 재너머 다니며 밥과 빨래를 하니 차가운 바람은 뺏속까지 파고 들어온다.

어려운 생활을 견디고 자녀들을 출가시키고 나니 관절통은 나이와 더불어 고개를 든다. 관절통으로 인하여 수면장애와 소·대변을 보는 것과 바지락캐 때 누워서 캐게 되는 것 등의 활동장애를 경험한다. 관절통으로 너무 아프고 저려서 자신의 몸을 더 이상 자신의 몸이 아닌 것으로 부정하고 병신으로 혹은 잘라 버리고 싶을 만큼의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자녀들과 남편은 이제 자신을 관절통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있어서 낫지 않는 고질병으로 취급하고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등한시하였다. 그러나 참여자들은 오래 전부터 병원과 약국뿐만 아니라 한방치료인 한약과, 침, 뜸, 부항을 해보았지만 안돼서 주변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나아졌다거나 좋다는 이야기만 들어도 그 약의 이름이나 안전성도 생각하지 않고 한번씩 시도를 해보게 된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절통은 낫지 않고 힘든 일을 하거나 차가운 날씨가 되면 언제나 다시 엄습해와서 잠을 자지 못하게 하여 고질병이라

는 생각이 들게 한다. 이러한 관절통으로 인한 고통 속에서도 먹고살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일해야 되기 때문에 갯바탕에 가서 정신없이 바지락을 캐면서 자신의 관절통을 잠시나마 잊게 된다.

도서지역 여성에 있어서의 관절통의 체험에 관한 본질과 의미추구과정에서 연구자가 느낀 사실은 도서지역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간호제공에는 반드시 이러한 自然環境과 文化에 바탕을 둔 看護가 必要하다는 사실이었다.

IV. 結論 및 提言

1. 結論

관절통을 경험한 도서지역 여성의 體驗의 本質과 意味를 理解하기 위한 본 연구는 벤 매년의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네 단계의 연구과정인 체험의 본질에 집중, 실존적 조사, 현상학적 반성, 해석학적 현상학적 글쓰기를 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인천광역시 내에 위치하는 일개 도서지역에 살고 있는 10명의 여성으로 자료수집은 1998년 4월 2일부터 5월 16일까지 1차, 2차의 심층면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구 참여자들이 체험한 본질의 主題는 다음과 같다.

잘라버리고 싶은 처절함, 산후한풍으로 인한 시려움, 뺏속까지 갯바람이 스며들, 나홀로 감당해야 하는 또 하나의 아픔, 좋다는 거 다해봐도 재발되는 거둬됨, 생활고로 마디마디 아픔도 때때로 잊어버림이었다.

이상의 주제를 놓고 볼 때 도서지역 여성의 관절통의 체험은 단지 관절의 동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관절통으로 인한 삶의 변화를 겪고 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같은 사실은 관절통을 경험하는 도서지역 여성에 대한 새로운 看護學적 接近이 必要함을 말해 주고 있다.

또한 참여자들의 관절통의 원인으로 말하고 있는 것들은 그들의 삶의 체험에서 나온 것이므로 산후조리의 영향과 다습하고 바람이 많은 지역에서의 관절통의 경험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이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2. 提言

현상학적 연구에서 한 개인의 경험은 그 사람이 살아온 경험의 내용 안에서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으므로 현상학적 研究의 發見이 암시로 가득차 있더라도 간호 수행과 간호교육, 연구, 간호정책분야에 有用性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며 이를 바탕으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看護實務面에서 볼 때 간호 수행시에 간호사들은 도서지역 여성의 관절통의 체험에서 나온 의미를 간호사정을 통해 발견함으로써 多樣한 地域과 文化를 가진 여성 대상자를 간호할 때 보다 넓은 이해의 폭을 가지고 대하게 될 것이며 看護教育의 側面에서는 다양한 환경에 있는 대상자들에게 더욱 창의적인 간호 교육을 해보도록 할 수 있다.

看護研究의 側面에 있어서는 다양한 환경에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여 관절통에 대한 체험 연구를 함으로써 체험의 본질과 의미를 밝혀내고 한국에서의 관절통에 대한 독특한 한국적 간호개발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看護政策적인 측면에서는 불법적으로 침, 부항 등이 시술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이의 실태조사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간요법체계와 동의학적체계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관절통을 경험한 여성을 대상자로 간호하는 간호사는 이들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통해 더욱 전문적인 지식과 태도, 기술을 갖추는 동시에 깊이 있는 看護相談者의 役割도 함께 담당하게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참 고 문 헌

- 강영길 (1992). 제중신편(濟衆新編). 여강출판사.
- 강형희 (1993). 나는 성인병의 실체를 보았다. 한의원과 물리치료-病床手記, 광민출판.
- 김분한 (1992). 암의 원인지각에 관한 탐색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상직 (1995). 근육·관절계 질환. 한국의 침구, 90('95, 9), 28-35.
- 김영현 (1990). 엄마의 발톱. 실천문학사.
- 민순실 (1992). 동의내과 증상의 감별과 치료. 동의학 총서.
- 박완서 (1990). 미망. 문학사상사.
- 손봉호 (1992). 고통의 현상학, 생활세계의 현상학과 해석학. 서울: 서광사.
- 신경림 (1997). 도시지역 성인여성의 건강상태에 관한 연구. 성인간호학회지, 9(1), 124-135.
- 신경림 역 (1994). 체협연구. 동녘.
- 신경림 역 (1997). 질적간호연구 방법.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안병결 (1995). 근육·관절계 질환. 한국의 침구, 90('95, 9), 36-43.
- 양성모 (1982). 새 국어사전. 서울: 동아출판사.
- 윤주영 (1997). 어머니의 세월. 눈빛.
- 은 영 (1994). 만성통증환자의 통증경험. 서울대학교박사학위논문.
- 이기열 (1976). 한국인의 식생활. 연세대학교출판부.
- 이상현 (1994). 관절염의 정의, 증상 및 진단. 류마티스학회지.
- 이희승 (1974). 국어 대사전. 서울: 민중서림.
- 정문길 (1995). 간호학대사전. 한국사전연구사.
- 조아정 (1994). 우리 외로울 때. 을지서적.
- 조정래 (1986). 태백산맥. 해냄.
- 차재호 역, Geert Hofstede (1996). 세계문화와 조직. 학지사.
- 최봉변 (1995). 관절 류마티스 양증의 동서의학적 검사. 한국의 침구(鍼灸), 93('95.12), 10-14.
- 최봉영 (1997). 한국문화의 성격. 사계절.
- 최준식 (1995). 한국의 종교이야기.
- 허 정 (1982). 노인과 건강: 현대사회와 노인 복지. 아산사회복지 사업재단.
- 허 준 (1966). 국역 동의보감. 풍년사.
- 허창희 (1994). 우리한의학. 대한 한의사 협회.
- 허혜경 (1995). 만성통증환자의 생활경험에 관한 연구-여성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를 중심으로. 대한간호학회지, 27(1), 13-25.
- 헤르만헤세 (1997). 유혜자 역, 아름다운 죽음에 관한 사색. 실천문학사.
- Anderson, K. O., Bradley, L. A., Young, L. D., McDaniel, L. K., & Wise, C. M. (1985). Rheumatoid arthritis: Review of psychological factors related to etiology, effect and treatment. Psychological Bulletin, 98, 358-387.
- Brown, G. K., Nicassio, P. M., & Wallston, K. A. (1989). Pain coping strategie and depression in rhematoid arthriti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7, 652-657.
- Rosaldo, M & Lamphere, L(des) (1974). Woman, Culture and Society, Stanford: Stanford Univ. press.
- Kim, H. Y. (1986). Diagnosis and differential diagnosis of rheumatoid arthritis. Jouranl of Korean Medical Association, 29(1), 15-20.